

ECHO^{#03}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vol.3

총괄편집장 김성해 Kim seong hae
정연주 Jeong yeon ju

Design
남민지 Nam min ji
이승민 Lee seung min

Editor
나중일 Na jung il
윤유미 Yun yu mi
조은진 Jo eun jin

Photo
이경연 Lee gyeong yeon

letter from the **echo**, webzine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과 시련 그리고 바람 없이 지나갔던 적이 있을까요?
이번 호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들을 참아 줄기를 곧게 세워 피는 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정기 총회의 순간을 견디고 당선된 2017 학생회의 당선 소감문을 시작으로
휴학한 친구의 홀로 떠난 해외 어학연수를 비롯하여 LEVEL 4를 찍은 최자은 학우의 이야기,
축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막연하게 시작한 축구부 웹매거진 'DUF MEDIA'를
시발점으로 하여 축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졸업생 이야기,
1학년 공로상에 빛나는 성다희 학우의 익숙해지기 위해 부딪친 인터뷰,
덤벙대고 실수하고 혼나기가 취미인 22세살의 패션잡지사 어이스턴트의 인턴 이야기
또 그 친구가 들려주는 학우들에게 추천하는 올 유행 립스틱 이야기까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듯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듯이
흔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속 꽃이 뿌리내려 피어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우리의 울림이 멀리 퍼져가길 바라며 'ECHO'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을 바라보며 정연주 드림

VOL3 CONTENTS :

E

06 COMM.ON

201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

08 가슴벅찬 모두의 학술제

15학번이 본 학술제

10 야구가 Monday

ALL ABOUT 2016 BASEBALL

12 절대 혼자 올라갈 수 없었던 LEVEL4

4학년 최지은 학우의 이야기

C

15 이것이 바로 어시스턴트의 길

14학번 김윤정 학우의 잡지이야기

17 잠시 쉬어가도 좋아

휴학생 김표경 학우의 이야기

20 축구와 소통하다

졸업생 박병준 학우의 이야기

H

23 DUF

비수도권 대학 최초의 축구부만의 웹진

25 익숙해지기 위해 부딪치는 법

성공적인 학술제를 이끌어 낸 성다희 학우 인터뷰

O

29 All that lipsticks

김윤정x조은진 에디터의 립스틱추천

31 뽀뽀 나홀로집에는 가라

크리스마스 영화 추천

3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우들의 데일리룩

개성있는 미컴학우들의 스타일

38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연설과명언

교황 프란치스코





Engaging

comm.on

커뮤니케이션을 켜라

학우들이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켜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것도 있지만 저희
학생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학우들 개인의 마음속의 “
그 무엇” 인가가 켜지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저희들은 한순간의 뜨거운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열정으로 모든
일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홍
성
혁

이
경
연



comm.on 당선 소감문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회장 홍성혁, 그리고 부학생회장 이경연입니다. 에코 웹진을 통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가가게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새로운 시작을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회 활동을 이런 것을 기획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적인 공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입후보해보라고 추천해준 학우들과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학생회활동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힘든 결정을 내려준 학우들, 볼 때마다 잘할 거라고 격려해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 명칭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comm.on**학생회입니다.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켜라’는 슬로건인데요, 학우들이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켜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것도 있지만 저희 학생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학우들** 개인의 마음속의 ‘그 무엇’ 인가가 켜지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내년에 입학하게 되어 대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켜지길 바라고, 재학생들에게는 모두가 함께하면 더욱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촛불이 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둘 부분은 바로 ‘학생참여’입니다. 정기총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우들에게 외면 받고 학우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항상 목표에 걸 맞는 공약을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 **학과활동의 중심인 랩실**에 관한 공약인데요, 재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존 랩실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랩실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랩실 성과제”라는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 각 랩실 특성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또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랩실의 성과를 체크하여 이행률에 따라 랩실 학생회비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에 침체되어있던 랩실 활동을 증진시키고 학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토론 배틀’입니다. 중요한 실익을 담은 논제와 최근 이슈 등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승 팀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참여를 독려할 생각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만의 공론 장을 형성하고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토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여학우 친목회’입니다. 점점 학과 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여학우들 간의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 여학우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해낸 공약입니다. 기존 1년에 한번이었던 형식적인 여학우 친목회를 학기별로 한번, 그리고 여학우들만의 피구대회도 함께 진행 될 예정입니다. 여 학우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먼 캐스트’**입니다. 기존 텍스트 홍보에서 영상 및 미디어 콘텐츠 홍보로 변화함으로써 많은 홍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과 소식 및 정보들을 30초 영상, 혹은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하고 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 MC-PLU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넓힐 예정입니다. 다가올 comm.on 학생회의 야심찬 공약들.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도전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공약들이지만, 저희 학생회인원들은 이를 실천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투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기총회 당시 정말 긴장하여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내내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높지 않은 찬성률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학우여러분의 걱정도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마음을 저희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바꾸어 많은 학우분들의 불만이나 의견들을 수렴하여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순간의 뜨거운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열정으로 모든 일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벅찬, 모두의 학술제



15년도 신입생으로 들어온 내가 처음 맞이하는 학술제는 '긴장' 그 자체였던 것 같다.

학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동기들과 재미있게 떠들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학술제는 생각했던 것 보다 동기들과 많은 갈등을 낳기도 했고, 부담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학술제 전달까지 리허설을 했던 연극은 아직도 무언가 2% 부족해 보였으며, 괜히 망쳐서 욱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많이 걱정스러웠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처음 강당에 들어선 순간을 잊지 못한다. 모두가 분주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사이 동기들끼리 간식거리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 주제는 당연히 우리의 연극과 합창이었다.

'커튼 칠 때 타이밍 잊지 말자.', '대사 할 때 목소리 좀 크게 해.', '노래 부를 때 질서 지키면서 서자.' 이런 사소한 걱정거리가 손에 땀이 가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차례는 웃고 즐기며 살짝 긴장을 푸는 사이 금세 다가왔다. 나는 커튼 담당이었는데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모른다.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단상이 아주 좁았는데 커튼을 치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긴장되었는데 아마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동기들은 더 했을 것이다. 그 중에 분명 조금씩 티 나지 않게 애드립으로 대사하는 동기도 있었다. 특히 친구 없는 왕따 배역을 맡은 동기가 그래서 커튼 속에서 들리지 않게 몰래 웃었던 기억이 난다. 더불어 연극을 보는 학우들의 표정과 리액션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자리인지라 반응을 보기 위해 힐끔 쳐다보고 그랬던 것 같다.

연극과 합창이 성황리에 마쳤을 때는 안도감, 벅참, 뿌듯함, 대견함 뒤 온갖 좋은 감정표현을 다 붙일 수 있을 만큼 좋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이었긴 하지만 고생하고 걱정하던 순간을 생각하니 박수를 받는 것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일까?

긴장감이 맴돌던 15년도 학술제는 저 멀리 건너가고 16년도 학술제는 '여유'로 채워졌다. 몇시간으로 시작되고 끝났던 작년 학술제와 달리 올해 달라진 점이 많았다. 인테리어도 예쁘게 꾸며졌고, 느껴지는 기분도 초조했던 작년과 다르게 걱정과 부담 없이 여유 있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즐길 수 있었다. 15년도와 다르게 선배가 되어서 맞이한 학술제 또한 처음이라 살짝 낯선 기분이기도 했다. 거기다 내년부터 학과명이 바뀌는 만큼 신문방송학과로서의 마지막 학술제인 만큼 기분도 색달랐다. 그런 만큼 더 즐기기 위해 여기저기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기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며 작년과는 다른 프로그램인 무박2일 '영상제' 까지 더해져서 상기되어있었다. 밤새 스튜디오에 앉아서 비포선라이즈, 라이트아웃, 엑셉티드, 밀정 등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즐겼으며, 함께 온 동기들과의 담소도 무거움은 없었다. 동기들이 이제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아쉽긴 하지만 작년을 회상하면서 떠올린 기억들로 나누며 떠들었던 대화들은 웃음으로 가득하기만 했었다.



16학번 후배들의 연극과 합창을 봤을 때는 환호와 박수밖에 칠 수 없었다. 우리 때와 비슷한 주제이지만 고양이 시점으로 스토리를 풀었던 우리와 다르게 형제간의 싸움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간 점이 독특했고 무엇보다 그 곳에서 그들의 노력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역할들이 머릿속에 담겼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계속 된 영상제도 결코 지루하지 않았고 재미있었다. 더불어 마지막에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가질 거라고, 가지고 싶다고 장난삼아 말하며 소망하던 경품까지 받았으며 치킨, 피자에 각종 먹을거리도 부족함 없이 넉넉해서 팬스레 내 마음까지 넉넉해진 기분이었다.

15년도 학술제와 16년도 학술제는 경험도 다르고 느낀 바도 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17년도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첫 학술제 또한 기대해본다.

글 / 최수미



2016 POST SEASON



야덕들이 말하는 프로야구

야구가가! Monday?



안녕하세요, 야구가 Monday 콘텐츠 팀입니다. 저희 야구가 Monday 팟캐스트 팀에서는

라디오를 통한 다양한 야구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올 시즌 프로야구 경기들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올 시즌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는 어떤 팀이 웃고, 어떤 팀이 울었을까요?

ALL ABOUT 2016 BASEBALL

패넌트 레이스, 즉, 정규리그에서는 두산 베어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패넌트 레이스 우승은 OB베어스 시절을 마지막으로 무려 21년만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력한 선발투수들을 포함해서 3할이 넘는 주전 타자들을 보유한 두산 베어스. 그만큼 다른 팀들과도 큰 격차로 여유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NC 다이노스입니다. 올해 결국 삼성에서 박석민을 영입하고, 투수들에게 실手を 주지 않는 나-테-이-박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을 꾸린 NC 다이노스입니다. 창단 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시 NC의 힘은 상당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겹쳤던 NC이지만, 앞으로의 활약은 더욱 기대되는 팀입니다. 3위는 넥센 히어로즈입니다. 넥센은 박병호와 강정호 톱타자들을 모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놓고도 저력이 대단한 팀입니다. 특히, 올해 넥센에서는 신재영 투수와 김세현 투수가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신인 투수들이 베테랑 투수들 못지않은 기력을 뽐내며, 상위권 도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4위는 LG 트윈스입니다. 올 시즌 결국 팬들에게 유광점퍼를 입게 만든 LG인데요. 두산과 같이 잠실을 쓰는 LG 역시 가을야구의 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즌 도중 하위권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었던 LG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LG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턱걸이로 와일드카드 쟁탈전의 기회를 잡은 팀인 5위는 어느 팀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선빈과 안치홍이 합류하면서 더욱 기력을 보냈던 기아입니다. 더군다나 윤석민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마무리 임창용까지 더해지면서 상대팀들은 쉽게 역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LG와 가을 야구에서 14년 만에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팀들이 있었다면 안타까움에 눈물을 호소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와일드 카드 쟁탈전을 놓친 SK 와이번스는 1.5경기의 간발의 차로 가을야구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최정이가 홈런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소식들이 들렸지만, 가을야구의 소식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팬들이 '부처'라고 불리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이용규와 정근우,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진들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정우람도 합류했기에, 올 시즌 가을야구를 즐길 수도 있던 한화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용병인 로사리오 역시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했는데요. 포스트 시즌의

냄새를 맡기에는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 8위를 기록한 롯데는 어떨까요? '야구'하면 '부산', '부산'하면 '롯데'인데요. 최근에 많은 전력 이탈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롯데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왕조'라고 불렸던 팀. 포로야구 사상 최초 정규리그 5연패, 통합우승 4연패를 이끈 삼성입니다. 왕좌중의 왕좌에 머물렀던 시절이 바로 작년까지였는데, 올해는 팀으로써는 믿을 수 없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빠르게 극복하려했지만, 올해 포스트 시즌 티켓은 물 건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KT 위즈입니다. 작년부터 1군 무대에 서게 된 KT입니다. 아직 팀들 중에 막내라서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KT 위즈입니다. 비록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KT 위즈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야구의 재미를 마무리하는 포스트시즌에서는 어떠한 경기들이 있었을까요? 포스트시즌의 막을 여는 와일드카드 쟁탈전에서는 KIA가 LG를 1차전에서 꺾었으나, 2차전에서 패배하면서 넥센과의 경기 약속은 LG가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넥라시코'라고 불릴 만큼 라이벌인 LG와 넥센의 경기에서는 LG가 강한 뒷끝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와일드카드 쟁탈전 1차전에서 아쉬운 수비장면을 보여주었던 오지환 선수가 이번에는 본인의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3:1로 LG가 올라가게 되면서, NC와의 경기까지 LG가 하게 되었습니다. 와일드 카드 쟁탈전과 준플레이오프까지 경기를 치룬 LG가 체력적 부담인지는 몰라도 NC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도 LG로써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NC가 최종 스코어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한 해의 왕좌를 가릴 한국시리즈!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올 시즌 처음부터 파상공세였던 두산 베어스가 '판타스틱 4'라고 불리는 투수진들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최종 스코어 4:0으로 압도적인 승리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야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구의 끝은 언제나 팬들을 아쉽게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반드시 새로운 야구가 찾아올 것이기에, 팬들은 새로운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야구 소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전해질까요? 새로운 야구 소식 이제 야구가 Monday 시즌 3 라디오와 함께 들어보세요~.

최저은 절대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었던, LEVEL 4

얼마 남지 않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지내면서 지난 과거를 하루하루 찬찬히 생각해보게 된다.
내가 카메라를 칠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학교 안에서 몇 편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할 수 있게 된 건 어떤 계기 때문일까.

1학년 때, 내 주변 친구들은 편집하다 밤을 새우면 미쳤다 그랬고, 밤늦게까지 촬영현장에서 돌아오면 뭐 그렇게 까지 하냐고 물었다. 그 때는 다들 걱정하는 투의 말이었지만, 지금은 '너는 꿈이 있어서 좋겠다',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겠다'라는 부러움의 말이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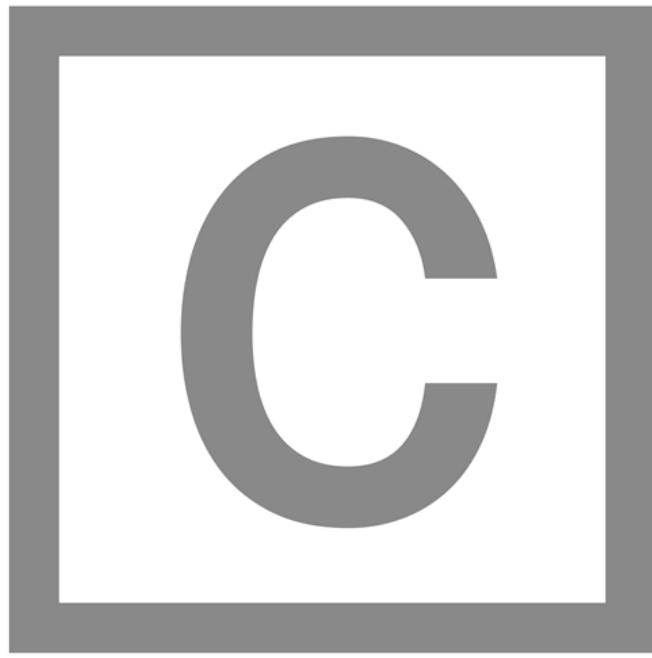
아직도 1학년 때, 연분홍 패딩을 입고 선배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게 기억난다. 무작정 영상이 좋아 AMOEBA에 들어갔고, 거기서 날 이끌어주는 선배를 만난 게 신의 한 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편집실에 들어가서는 선배가 편집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었다. '편집에 관심 있냐'는 선배의 물음에 해본 적도 없으면서 고개만 연신 고덕었는데, 그게 지금 날 편집실에서 출퇴근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다.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 가르치기 참 힘들었을 텐데, 싫은 내색 하나 안 보이고 가르쳐준 그 선배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4학년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면 위에서 끌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책 없이 살았는데 4학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손에 쥘 것도 많고, 방향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았다. 생각해보면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날 발전하게 하였던 것 같다. 촬영 장비 하나 없는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었던 건 우리 학과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걸 찍고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 외에도 스스로 작품 욕심이 컸던 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1학년 때 편집을 배운 이후로, 1년에 하나라도 작품을 만들지 못하면 손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해지고, 불안하고, 혹시나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까먹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가끔 이게 병인가 싶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뭔가를 빠릿빠릿하게 추진하는 성격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함께함이 큰 도움이 됐다. 같이 있는 동아리에서 작품을 도와주기도 했고, 학과 수업 중 작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때, 다들 말하는 '같이의 가치'를 알게 됐다. 어느 무엇 하나 나 혼자 만든 것은 없다. 누구의 도움 없이 만들어질 작품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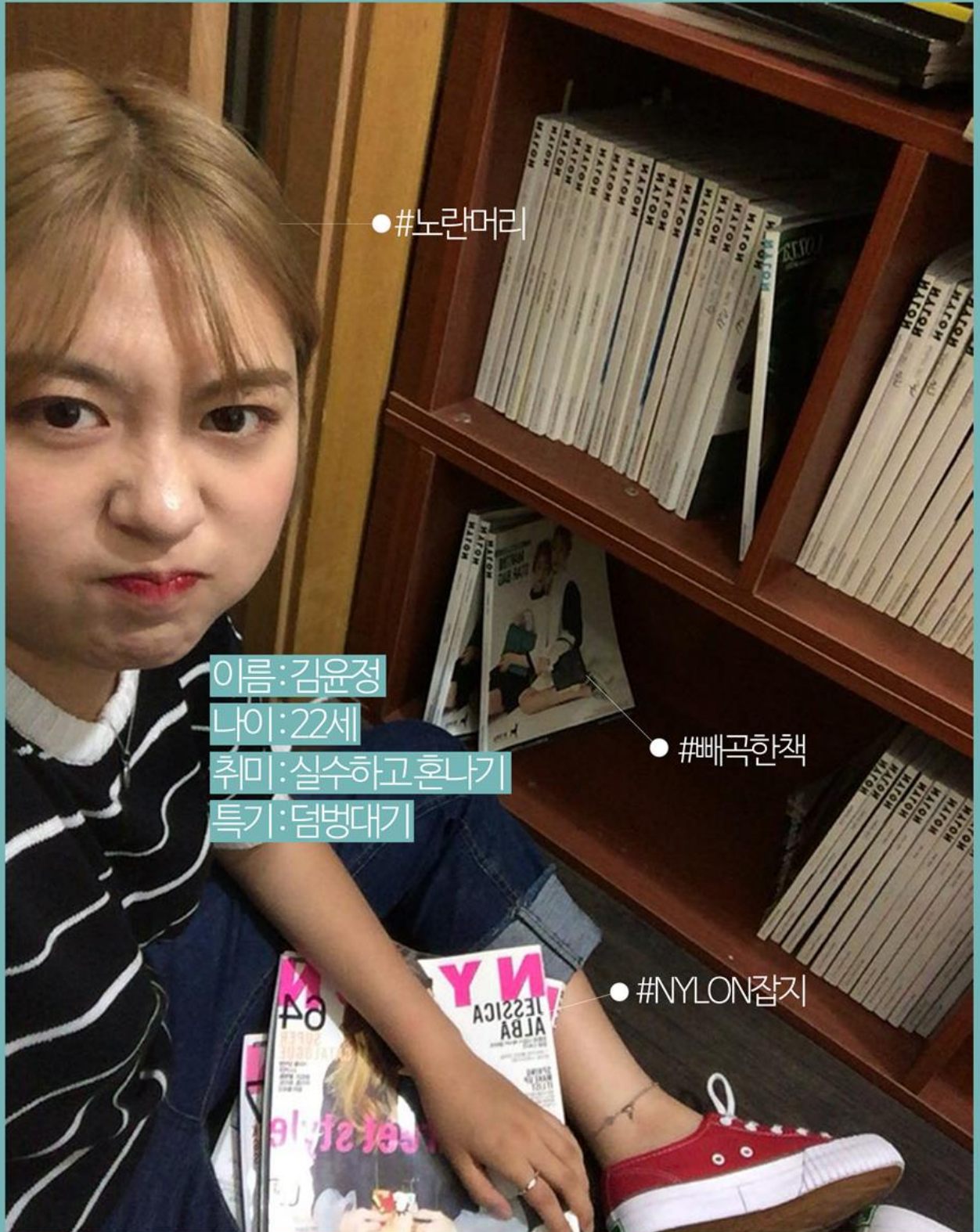
3학년 때, 학과 제작 수업으로 만들었던 단편영화가 2편 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았던지라, 하나하나가 생생히 기억난다. 사실 이 얘기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건데, 난 솔직히 이 제작 수업을 내가 제일 잘할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있었다. 나는 영상 제작하는 수업을 듣기 전까지 항상 스토리를 혼자 구상했고, 혼자 편집했다. 그런데 영상을 6명의 팀원과 함께 제작하라니, 처음에는 6명이면 놀 사람도 있겠고, 3~4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의 자만심에 빠져서는 팀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각자 스토리를 구상해서 촬영할 시나리오를 정하자고 했었고, 난 당연히 스토리를 내가 제일 잘 쓸 줄 알았다. 정말 부끄럽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보다 잘 쓰는 친구가 당연히 있었고, 이야기의 전개가 매끄러우면서도 흡입력 있는 친구도 있었다. 혼자 자만하다가 머리를 땀하고 맞은 기분이었다. 정말 겨우 한글 뎀 애가 국어책 읽는 아이 앞에서 으스스대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기획하고, 연출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데 워낙 고집을 부리고, 내가 너보단 잘 안다는 마인드가 팽배해 팀원이 내는 의견을 반박하기만 하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틀렸다고 반박만 했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팀끼리 만드는 건데 말이다. 심지어 혼자 만들어도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혼자 고집불통, 독불장군처럼 귀를 달아버렸다. 덕분에 첫 번째 만든 작품은 미미하게 끝나버렸다. 두 번째 만들 때는 좀 냉정하면서 최대한 팀원의 의견을 수용하자고 생각했다. 6명이나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첫 작품을 만들면서 사라졌고, 6명 모두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하기는 역부족이었고, 팀원들이 없으면 시작도 못 했을 것이다. 스토리를 쓰는 사람은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을 맡았고, 섭외하는 팀원도 있었고, 촬영하는 팀원도 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다.

두 번째 영화를 편집하면서 그때만큼 즐겁고, 수월했던 때가 없던 것 같다. 정말 편집을 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고, 팀원들이 옆에서 북돋워주니까 안 될 것 같던 것도 시원하게 해결됐다. 그렇게 4학년이 되고,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나는 여전히 촬영 장비를 메고 뛰어다니고 있다. 4학년이 되어서까지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동기를 준 학과 시스템도 고맙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다. 나는 더 나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그 길에서 함께하는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4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게도, 짧게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 삶의 추억이 되고, 거름이 된 보람찬 시간이었다. 이 기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만큼, 잊지 않고 더 발전하는 내가 될 것을 자신에게 약속한다.



Communicating

#그것이바로_어시스턴트의길



● #노란머리

이름: 김윤정
나이: 22세
취미: 실수하고 혼내기
특기: 덤벼대기

● #배곡한책

● #NYLON잡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걱정말고 설레여라

“걱정하지 말고 설레여라” 라는 말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면서도 요즘의 나에게 필요한 말이기도 해 ! 근 6개월간의 나의 일과를 되돌아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건 기본, 당장 코앞에서 벌어질 일도 모르는게 나의 요즘일과야. 이쯤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 나는 패션잡지사 <나일론>의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있어. 어시스턴트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인데 나는 뷰티팀 소속이며 선배들을 도와 매 달 뷰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패션잡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해보이지만 전쟁터 같은 잡지사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아 !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월급도 매우 적어서 그야말로 열정페이 혹은 자원봉사라고 불리기도 해. 그럼 내가 한편의 잡지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줄게.



매 달 15일 마감을 기점으로 마감이 끝나고 2-3일 후에는 다음달 기획에 들어가. 1-2주 정도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 기획회의의 위주로 일이 진행되고 편집장님의 “OK” 사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로는 촬영을 해. 촬영을 하기전에 필요한 의상과 화장품, 그 외의 소품 등등을 준비하는 일을 보통 어시스턴트들이 맡아 하고 있어. 뷰티 촬영의 경우에는 한 촬영당 보통 50-60개 많으면 100개 정도의 화장품들이 준비되는데 이것을 촬영 스케줄에 맞춰서 물건을 풀어놓고 정리하는 것이 주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화장품이 좋아서 뷰티어시스턴트가 된 나도 그만한 화장품을 정리할 때만큼은 질리기도 하더라구 모든 촬영이 끝나고 나면 마감 전까진 원고를 써. 어시스턴트들은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용량, 가격 등을 적어서 선배에게 주면 돼. 사진과 원고가 완성되면 아트팀으로 넘어가 디자인이 잡히고 교정 교열을 본 후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어느 새 한 달이 후딱 지나가 있곤 해.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옛날부터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 나는 중학교 2학년때 잡지메디터가 되자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널이나 광고 등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진학을 했어.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잡지에 관한 내용은 많이 배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잡지를 공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잡지스터디를 만들었어.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 잡지 스크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운영 블로그를 만들어 요일별로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지. 1년정도 밖에 운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방문자수

는 꽤 많았어! 이렇게 작은것들을 시작으로 내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3학년이 된 지난 6월에 어시스턴트에 지원을 하게 된거야. 나는 내가 준비해온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 한 것에 비해 정말 별게 아닐까라 생각했어. 솔직히 지방인 대구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어도 더 큰 세상에서 보고 배운 학생들보다 부족할까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이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리고 매 년 참가했던 집단지성캠프는 늘 나에게 자극을 주었고 그때 인연을 쌓게 된 에디터님에게는 면접 전에 조언을 구하며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참가하며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일을 하면서 혼나는건 기본이요, 서러움에 택사에서 엉엉 울어본적도 있고, 퇴근길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눈물을 왈칵 쏟기도 하며 패션팀 어시스턴트들이랑 신세한탄을 하면서 마주보고 울어보기도 했어. 뭐가 그렇게 힘든지 너무 지칠 때도 있지만 매 월 호에 적혀 나오는 내 이름 석자에 그 눈물과 수고가 담겨있다고 생각해. 힘들고 지쳐도 나는 일을 하면서 즐겁기에 앞으로도 나의 노고를 지면에 표기되는 그 이름으로 보상 받을꺼야. 잡지글이 아닌 이야기 글을 쓰는건 오랜만이어서 두서없이 적어내린 글이 부끄럽기만하지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한 문장으로 내 글을 정리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좁은 랩실방 안에서 나와 같이 꿈을 키워준 아란선배, 은진이, 예진이에게 그대들이 있어서 늘 든든했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내 이야기를 마칠게!

잠 시
쉬 어 가 도
좋 아

글 / 김표경



아 무런 생각 없이 갑자기 휴학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래서 휴학 후 겨울방학은 줄곧 여행을 다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까운 일본 중국 등 충분히 나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리고 3월쯤 어학연수라는 계획을 세웠다. 전부터 부모님께서도 해외 연수를 몇 번 권유하셨다. 나는 그때마다 다음으로 미루며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다.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혼자 머물러야한다고 하니 막상 두려움도 있었고 다녀와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시간낭비 돈 낭비 같았다. 내 생각이 변한 것은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였다. 물론 요즘, 영어는 필수일정도로 토익 토플 같은 공인성적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분명 그 이유에서만 아니었다. 방학 중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결과 지금 내 나이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막상 해외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고 설레었다.



5월 중순경 나는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어학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기본 실력은 있었지만 모든 수업을 영어로 소화해야하니 조금 버겁기도 했다. 한국 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내 룸메이트는 2살 많은 일본인이었다. 한동안은 약한 향수병을 앓았던 것 같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한국이 그리웠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일본인 룸메이트 뿐 이었다. 서로 위로의 한마디를 더해주려고 사전을 찾아가며 더듬더듬 밤마다 담소를 나누곤 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어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두 기댈 곳이 필요했을까 한국 학생들과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힘과 위로만 되었을 뿐 아니라 자극제 역할도 동시에 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 세계 일주 같은 풍부한 경험을 해본 사람, 심지어 우리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다.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는 여태껏 내 모습이 세숫대야에서 헤엄치는 개구리였음을 알았다.

이후로 더욱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다. 학업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과 필리핀 문화를 아쉬움 없이 즐겼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주일엔 교회에서 성실히 예배 드렸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조금 달랐다. 한 없이 순수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지나친 사교육에 힘들어하고 취업에 불안해하는 반면 내가 본 그 아이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사소한 것에 웃고 행복해 할 줄 알았다. 이 또한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6개월을 머물면서 생일도 보냈고, 현지인들과 축제, 파티도 함께하며 어울렸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즐긴 것 같다. 한국에 온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내겐 많은 것이 남아있다. 이전과 비교해서 놀랄 정도로 향상된 영어 실력과 자신감, 오랫동안 유지 하고 싶은 좋은 인연들, 무엇보다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과 나만의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이 앞으로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한번쯤 휴학을 고려하고 실제로도 많이 한다. 분명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연속되는 긴 학업생활에 뒤쳐져 잠시 쉬어 가는 것, 졸업을 앞둔 초조함에 현실을 도피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 만 쉬어가는 그 시간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현 실을 도피하는 동안 불안감 속에 수 없이 나 자신에게 묻고 답하며 내 미래를 고민할 수도 있다. 짧건 길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 하다면, 잠시 휴식을 가져도 좋다고 말하고 싶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머리가 시키는 일이 아닌 마음이 시키는 일을 도전해 보았으면 한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모두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 일을 찾는 과정 또한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란다.



끈질기게 바라보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축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축구와 소통하다



끈질기게 바라보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끝내 잘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직업이 되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주변의 축구가 저를 이만큼 성장시켰기 때문이죠.

저는 축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축구 캐스터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대구대에 첫 발을 내디뎠던 20살. 꿈을 묻는 주변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꿈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럽지만 좋아하는 축구를 말하고 싶은 막연한 꿈뿐이었죠.

신입생 시절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상학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단편영화를 찍어보고 정말 열심히 야호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지만, 끝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전역 후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 꿈을 쓰고 표현하고자 블로그의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남는 시간을 쪼개 부지런히 블로그에 축구 기사와 칼럼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투박하던 글이 조금씩 형태를 갖췄고, 글의 구조와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 프로팀 대구FC에서 명예기자 경험을 시작해 주말마다 잔디 냄새를 맡으며 부지런히 현장을 취재노트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축구 캐스터의 꿈은 잠시 미뤄놓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꿈을 향해 두박두박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때처럼 취재를 마치고 우리 학교 서문 운동장을 지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구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날 저녁 대구대학교 축구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막연한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이 선택이 대구대학교의 '축구'를 바꿨습니다.

대구대학교 축구부 웹 매거진 DUF MEDIA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일에 열정 있는 학우들이 하나둘 모였고, 현재는 비수도권 대학 최초의 축구부만의 독자적인 웹진으로 자타 공인 대한민국 대학축구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리더의 역할을 하며 '성공의 열쇠는 열정이지만,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라는 것을 '우리학교' 축구부와 함께 하며 느꼈습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업체에 취업해 얼마 전 수습 기간을 마치고 첫 명함을 받은 사회 초년생 선배로서 후배님들께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쫓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표현하세요! 야호 파이팅!”





Hosting

비수도권대학 최초의 축구부만의 웹진 DUF MEDIA

사진출처 _ pixabay

DUF MEDIA는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비수도권 대학 '최초'의 축구부만을 위한 독자적 웹 매거진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콘텐츠로 대구대 축구부와 함께 뛰는 든든한 파트너다. 박병준 학우(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졸업 '10)가 문을 연 DUF MEDIA는 다양한 전공과 꿈을 가진 6명의 학우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다수의 대학 축구부가 SNS 계정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2014년 여름 시작을 알렸던 대구대학교 축구부 웹 매거진 DUF MEDIA는 그들의 선두 주자인 셈이다. DUF MEDIA는 여타의 대학교 축구부와 달리 경기 일정과 결과를 알릴 뿐 아니라 기사,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대구대 축구부를 알린다.

DUF MEDIA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동아리 혹은 소모임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구대 축구부를 홍보하면서도 학교로부터 정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 경기를 취재하며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비를 팀원들이 직접 해결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진 팀원은 없다. 모두 축구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왕이면 자신들이 사랑하는 '축구'를 통해 험난한 취업난을 뚫어보려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대구대인들이 만들어가는 대구대학교 축구부 웹 매거진 DUF MEDIA는 열정으로 가득찬 우리 학교 축구부의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대학교 축구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그 끝엔 무언가가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럴 테니까.”



익숙해지기 위해 부딪치는 법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해 좌절하거나, 처음이라는 것에 발을 디디는 일은 누구나 흔히 경험한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하고 익숙해지느냐는 각자마다 다를 것이다.

16학년도 학술제의 1학년 공로상 수상자, 항상 바쁘게 살아왔던

16학번 성다희 학우를 만나 그간의 여정을 들어봤다.

에디터_윤유미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6학번 성다희

올해 1학년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소감이 궁금하다.

받을 줄 몰랐어요. (웃음) 몰랐는데 받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도 내가 학과에 많은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에겐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 자랑도 했어요.

공로상을 받은 만큼 많은 일들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나?

올해 2월 말에 있었던 OT부터 MT, 체육대회와 학술제까지 거의 모든 학과 행사에 참여했어요. 1학년들끼리 방학 때 뮤직비디오도 만들었고요. 게다가 영상 랩실 아메바에 들어가서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촬영와 영화 촬영 현장 스태프로 들어가기도 했고 영화관련 팟캐스트도 했어요. 팟캐스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학술제에서는 극찬을 받았던 연극의 출연출을 맡았다고 들었다. 그 뒷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

원래 연극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술제에서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 한 명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연극이 제 관심 분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출연출에 자원하게 됐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먼저 각자 개인 사정이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부터, 그로 인해 참석한 애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하는 것도요.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건 애들에게 연극을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심어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만들고 같이 했던 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동기들과 더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일들에 참여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간 것도 있고, 입시가 어려워서 대학 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컸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시간 동안은 후회하고 싶지 않은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시간을 온전히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대학 4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졸업하는 순간 일을 하고, 돈이라는 것에 얼마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시간을 버리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바쁘고 알차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싶을 땐 있죠. 근데 그 여유를 가지게 되면 '나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는 게 싫어요.

이 많은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술제. 학술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으니까.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만큼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고나니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평도 받았고, 애들도 잘 따라와 줘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학술제의 연극이 본인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원래 연극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이번 학술제에서 연극을 맡아서 한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극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학술제를 준비하기 전에도 여러 학과 활동을 하면서 자꾸 연극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고사를 쳤었어요.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공허했죠. '나는 안 되는 건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잡아준 게 학술제였어요. '역시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연기가 아니라도 그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길을 찾아 가야겠다는 생각이요.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연극, 공연예술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연극에 처음 도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실패를 했는데, 또 그 실패를 겪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끝이고 추락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절 진심 어리게 대해주니까 되게 빨리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일과 별개로 힘들었던 일은?

아메바 활동 중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촬영이요. 들어와서 처음 했던 활동인데 체계적인 교육 없이 그 현장에 바로 투입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것도 몰랐거든요. 일단 찍긴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찍은 건 영상에 단 하나도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웃음) 거기서 느꼈던 허탈감도 컸던 것 같아요.

이 긴 여정에서 느낀 게 있는지?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먼저 학교생활에서는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말해줬던 말씀들이 저의 자존감을 높여줬던 것 같아요.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전보다 자존감이 훨씬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학과생활, 선후배, 교수님들 모든 게 다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처음 경험해보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곳이니 적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앞서 말한 것들이 다 편해진 거예요. 특히 선배들과 MT에서 같은 조도 하고, 영화도 같이 제작하면서 선배들을 더 편하게, 잘 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나도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책임감이요.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생각도 강해진 거 같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동기들을 만난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만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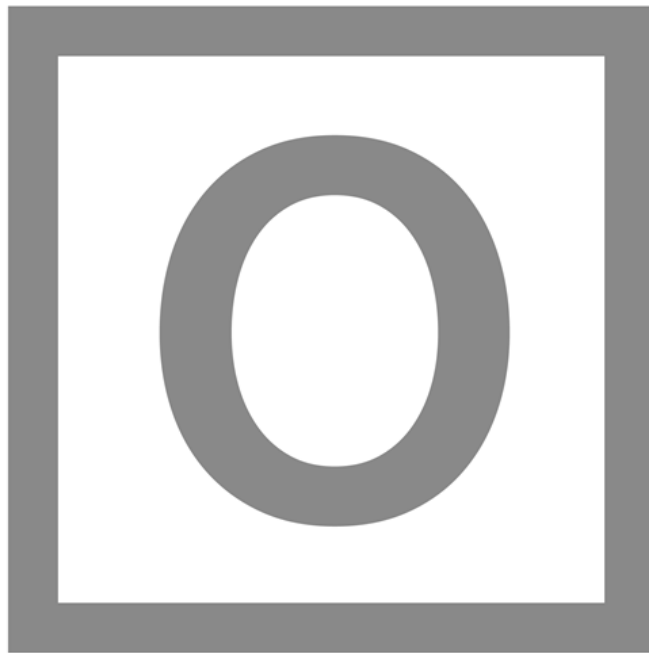
다가올 2학년은 어떤 거 같은지?

바쁠 거 같아요. 1학년 때도 충분히 바쁘게 생활한 것처럼, 2학년 때도 바빴으면 좋겠어요.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야하니까. 연애도 좀 했으면 좋겠고. (웃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나 전공에 대해서 실속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게 스스로 제 내면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의 나에게

뭘 하고 있을 건 모르겠지만,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후회는 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강수진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를 보고 느꼈던 게 많았거든요. 매순간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자존감 잃지 말고 꾸준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은 항상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그 끝엔 무언가가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럴 테니까.



Outreaching

all that lipsticks

윤정's pick

얼굴에 형광등을 켜듯 피부톤을 한층 환하게 만들어주는 레드립. 화장 좀 한다는 여자들의 파우치 한 켠에는 레드립스틱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자리를 넘보는 새로운 신흥강자 누드립이 등장했다. 해외 셀럽인 '카일리 제너'나 '사라 스나이더'의 sns를 보면 그녀들이 누드립을 즐겨 바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덕에 해외에서는 진작에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여러 뷰티 브랜드들의 누드톤 립스틱 들이 줄줄이 품질 대란에 오를 정도. 누드톤 립은 메이크업 전체를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동시에 얼굴에 우아한 분위기 까지 풍기해 해준다. 너무 누드한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좀 더 채도가 높은 벽돌색 혹은 말린장미빛 색을 발라 분위기 있는 입술을 연출해 보자.



1



4



2



5



3



6

1. YSL의 루쥬 뷔르 꾸뛰르 더 마뜨 218 코랄 리믹스 3.8g 4만2천원.
2. 에스쁘아의 젠틀 아우라 립플루이드 벨벳 문릿 6g 1만9천원.
3. 3CE의 무드 레시피 매트 립스틱 909 스모크드 로즈 3.5g 1만7천9백원.
4. 더샘의 에코 소일 인텐스 핏 립스틱 엔틱 오렌지 브릭 3.5g 1만3천원.
5. 톰 포드 뷰티의 립스앤보이즈 알렉산더 2.2g 3만9천원.
6. 나스의 벨벳 매트 립펜슬 돌체비타 2.4g 3만6천원.

all that lipsticks

은진's pick

겨울만 되면 건조해지며 갈라지는 입술 때문에 다른 계절에
발랐던 애정하는 립스틱을 꺼내 바르기가 힘들다.
강추위에 트다 못해 뜯어지고 피나는 입술위에 립스틱을
바르기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트한 립 특유의 컬러와 매트함을 보완한 아이템이 바로
글로시한 립글로즈다.

겨울을 맞이하여 다양한 컬러의 촉촉한 립을 발라보자.
이번 겨울에도 내 소중한 입술을 지켜 줄 수 있지 않을까.



1. 라네즈의 인텐스 립젤 No.1 로지 누드 4.5g 2만 5천원

2. 랑콤의 압솔뤼 루즈 264 3.4g 4만 2천원

3. 디올 어딕트 립스틱 수분 젤 코트 미러 샤인 765 울트라디올 3.5g 4만 1천원

4. 이니스프리 리얼핏 컬러 리퀴드 V4호 햇살 말린 튤립 4.5g 1만원

뻘한 <나홀로 집에>는 가라!

나의 크리스마스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영화 두 편

매 해 반복되는 크리스마스마다 만나는 케빈도 이젠 지겨워진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생각나는 영화다.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운명 같은 영화 <세렌디피티>

내가 사랑했던 기억들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이터널 선샤인>까지.

올 크리스마스는 이 두 영화로 올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자!



바보처럼 운명을 믿는, 〈세렌디피티〉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도 우연의 연속으로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이 있다. 뉴욕의 크리스마스 속에서 만난 사라(케이트 베킨세일)와 조나단(존 쿠삭)이다. 조나단의 변호 교환 요청에 책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헌책방에 팔고는 찾으면 연락하라 하고, 지폐에 조나단의 연락처를 적은 뒤 솜사탕을 사 먹고는 그 돈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면 연락하겠다고 말한다. 꽤 힘겨운 인연으로 이어진 둘은 우연을 필연으로, 그렇게 운명을 만들어간다.

사실 로맨틱 영화는 굉장히 뻔하고 심심하다. 다 보고나선 잠깐의 가슴 따뜻함을 가지고 그렇게 잊혀지곤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로맨스, 멜로영화를 기대하며 보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한 모든 일들이 영화 속에선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들 말이다. 극 중 사라는 이런 말을 한다. "그와 지낸 잠깐은 세상에 그와 나, 단 둘 밖에 없는 것 같았어." 한 번 좁은 세상에 둘만 있는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그런 연애를 꿈꿔보기도 한다. 이런 삭막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현실에서 그저 마음에 끌리는 연애를 해보는 것,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바보처럼 운명을 믿게 되는 작은 희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다시 기억되는, 〈이터널 선샤인〉

이 영화를 소개하기 전 필자는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고 슬퍼한 기억이 아직 존재한다면 영화의 감동은 배가 될 테니.

조엘(짐 캐리)은 아픈 기억만을 지워준다는 회사를 찾아가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케이트 윈슬렛)의 기억을 지우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무드 인디고〉, 〈수면의 과학〉을 연출한 미셸 공드리 감독의 작품이다. 다들 보지는 않았어도 이름만큼은 들어봤을 정도로 로맨스, 멜로영화중에서 유명하게 꼽히는 영화이기도 하다.

꽤 복잡한 편집과 구성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눈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의 말처럼 진짜 사랑을 해보고, 이별을 겪고 나서 이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감흥 없이 봤던 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아마 어렸을 때 읽고 이해하지 못한 어린왕자를 커서 다시 읽어본 느낌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본 사람들이 말하길, 이 영화가 그 때의 추억을 돌이키게 한다고 한다. 필자도 이 영화를 보고는 그 때를 상기시킨 적이 있었다.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던 그 시절로 데려가 혼자 즐겼던 기억에 미소 짓고, 아꼈던 추억에 다시 가슴이 미어지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매듭은 잠깐 묶었다 다시 풀어도 그 자욱이 남는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자욱들마저 사랑이란 매듭이었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다시 기억되는 것이니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우들의

#데일리룩



겨울편

2016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앞으로 우리에게 꽤 오래 머무를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그해답은 여기에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우들의 데일리룩 겨울편이다.

옷을 사랑하는 이들의 깨알 아이템 자랑이나 겨울 스타일링과 필수 아이템의 꿀팁까지 함께 했다.

각각의 개성 있는 미컴과 학우들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쏠쏠한 재미를 보장할 테니 얼른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12 김미현

좋아하는 스타일

클래식한 룩, 러블리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좋아하는 브랜드

마가린핑거스

겨울 필수 아이템

잘 만들어진 코트! 저렴한 코트는 금방 철 지나면 입지 못하지만, 잘 만들어진 코트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입을 수 있어서 가격이 조금 있어도 좋은 퀄리티의 코트를 하나 장만해놓는 편이다.





13 박은규

좋아하는 스타일

예전에는 특정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구매받지 않고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입는 편이다.

좋아하는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좋아한다.

겨울 필수 아이템

코트랑 목폴라티가 나의 겨울 필수 아이템이다. 추운 겨울 보온과 스타일을 잡으려면 두 아이템이 최고다.





13강지혜

좋아하는 스타일

딱히 추구하는 스타일은 없지만, 아무래도 용돈을 받는 학생 신분이다 보니 저렴한 아이템을 사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굳이 스타일로 따지자면 빈티지한 스타일이나 캐주얼한 룩을 선호한다.

좋아하는 브랜드

참스, 뷰티에 관심이 많아 마몽드, 어퓨, 나스 같은 뷰티브랜드 의 아이템에도 관심이 많다.

겨울 필수 아이템

목도리! 체크나 도트 등 패턴이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쉽게 포인트 주기 딱이다. 또, 매는 방법이 많아 어떤 스타일에 매치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편이다.





15 박현정

좋아하는 스타일

계절마다 다르긴한데 화려한 패턴이나 프린팅이 있는 옷은 잘입지 않고 셔츠와 청바지는 어느계절에든 입고 아무리 더워도 반팔티셔츠 보다는 셔츠를 즐겨입는다. 여름에는 원색 옷으로 포인트 주려하고 다른 계절에는 무채색이나 톤 다운된 색을 즐겨입는다.

좋아하는 브랜드

옷은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유니클로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기본적인 아이템이 많아서 더 좋은 것 같다. 신발은 노베스타라는 브랜드가 좋다. 스니커즈의 매력에 빠지게 해준 브랜드이다.

겨울 필수 아이템

발목이 긴 양말. 다 조화롭게 입어도 양말을 어울리지 않는걸신으면 전체가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 겨울에는 거의 무채색을 입어서 양말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따뜻하기도 하다.

겨울에 유니클로 히트텍 티셔츠는 거의 매일 입는 편이다. 겨울에 투박한 후드티나 니트말고 얇은옷을 입고 싶을때는 안에 끼입은지 티도 안나는 히트텍 티셔츠를 입어서 따뜻하게 내가 입고싶은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13 손창빈

좋아하는 스타일

레이어드룩, 미니멀, 심플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다.

좋아하는 브랜드

아웃스탠딩

겨울 필수 아이템

겨울에는 가디건을 주로 입는다. 옷을 입을 때 실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디건이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레이어드 룩을 연출하기 쉬운 편이다. 또한 보온성 유지를 위해 목폴라니트류는 필수 아이템이다.





에디터 / 나중일

교황 프란치스코

Francis, Jorge Mario Bergoglio

2013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2014년 포춘지 선정 세계 위대한 지도자
2014-15년 노벨 평화상 후보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음을 말이죠.
뒤편 오는 도전을 보지 않고,
문제에 답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에 답을 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도전들이 있는 그곳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고자, 좀 더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그곳'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
빈곤을 타파하려는 몸부림.
참된 가치들을 위한 고군분투.
매일 직면하게 되는 많은 삶의 투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산다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숨만 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야죠!

